

## 2 칼빈의 창조론<sup>1)</sup>

이오갑 교수 / 그리스도대학교, 조직신학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 사회에 심각한 생태학적 위기를 초래했다. 오늘날 인류는 대기나 수자원의 오염 등과 같은 크고 작은 각종 공해뿐만 아니라 가뭄이나 홍수, 폭염, 한파와 같은 기상 이변과 재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공통적으로, 아니 그들이 더 극심하게 겪고 있는 현상이다. 이미 수많은 생명체들이 멸종했고, 앞으로도 30년 안에 모든 생명체의 20%가 멸종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래서 과연 지구에 미래가 있을까, 인류 사회가 언제까지 존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우려를 금할 수 없게 된다. 그와 같이 현대는 환경 파괴, 생태학적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문제보다 더 중대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그것을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1. 이 논문은 靑安 김근진 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생명신학, 생태신학」(서울: 한들출판사, 2004), 132-154에 실은 “칼빈에 따른 창조에서의 인간의 지위”를 대폭 확장, 발전시킨 것이다.

환경 문제에 대해 기독교의 책임은 없는가? 기독교가 산업화나 자연 개발, 환경파괴의 주역은 아니었다고 해도, 적어도 유럽에서는 근대 세계 이후 “땅을 정복하라.”는 창세기 1장의 본문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남획을 정당화하고, 기술과 경제, 산업 발전에 우선권을 부여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sup>2)</sup> 그런데 기독교가 자연파괴에 일조했다는 혐의는 가톨릭보다는 특히 개신교 쪽에 더 많이 기우는 것 같다.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 정신과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제시했듯이, 또한 호이카스 같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개신교 국가나 도시들이 훨씬 더 자본주의적이고, 자연과학과 기술, 산업 발전에 앞장서 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3)</sup>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는 현대의 생태학적인 위기 앞에서, 이제까지 자신의 진술들, 자신의 신학들에 대해 반성하고 비판함과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학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 그것이 이제까지의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는 일이고, 동시에 인류 사회의 보존과 자연 생태계를 포함한 우주적 일치와 평화를 향한 소명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루터의 뒤를 이어 종교개혁 신학의 완성을 가져온 칼빈은 그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신학 주제인 창조론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그의 창조론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개신교 신학이 이후 근대 세계의 자연파괴의 정신적인 빌미로써 작용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동시에 그의 신학에는 오늘날의 생태학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의 단서도 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칼빈의 창조론은 무조

건적으로 배척되거나 수용되기보다는, 오늘의 상황에서 비판적으로 인식되고 재해석되어야 하는 주제이다. 그렇다면 칼빈의 창조론은 어떤 점에서 자연파괴의 원인이며, 또 어떤 점에서 그 해결책인가? 어떤 점에서 비판되어야 하고, 어떤 점에서 계승 발전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칼빈 사상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회들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풀어나가야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연구는 칼빈의 창조론 전체를, 그가 말한 그대로, 그의 여러 저술들을 통해서, 가능한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일로부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의 창조론은 오늘날의 환경문제라는 한 가지 시각으로만 보기에는 훨씬 크고 복잡한, 그리고 중요한 여러 다른 문제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신학의 풍부한 여러 내용들을 도외시한 채, 하나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만 뽑아내는 일은 균형이나 객관성을 잃을 위험이 크다. 더군다나 칼빈 당시는 환경 문제가 거의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창조론은 전혀 다른 배경들을 가지고 세워진 교리이다. 그래서 현대의 환경문제라는 관점에서 칼빈의 신학을 제한하고 재단하면 자칫 시대착오(anachronisme)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그의 신학을 그 자체로서 보려는 시도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나서, 환경문제라는 시각에서 그의 사상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일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칼빈이 그의 저술들 속에서 창조론을 다룬 부분은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의 창조론은 1536년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1장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 속에서 단편적으로 제시되었으며, 2장의 사도신조의 첫째 조문을 해설하는 부분에서도 간략하게 다루어졌다. 그것은 1539년과 특히 1543년판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확장, 보완되면서, 1559년 기독교 강요 최종판의 1권 14장과 15장에 자리 잡았다. 한편 칼빈은 1554년에 발간된 창세기 주석에서도 창조론을 다루고 있으며, 창세기 설교들 속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 설교에 나

2. C. Link, "La crise écologique et l'éthique théologique", in *Ruvue d'histoire et de philosophie religieuses*, avril-juin, 1981, 148.

3. M. Weber, *The Protestant Ethics and The Spirits of Capitalism*, 박종선 역, (서울: 세계, 1987), 27-36. R. Hooykaas, *Religion and the rise of modern science*, 이훈영 역, 「종교개혁과 과학혁명」(서울: 솔로몬, 1992), 135-136.

타난 하나님의 창조 문제는 리샤르 스토페르의 저술 속에서 방대한 인용문들과 함께 거의 완벽하게 다뤄진 바가 있다.<sup>4)</sup> 설교에 나타난 이 주제에 관해서는 그 책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 칼빈이 창조론을 다루는 것은 거의 그런 자료들에 국한된다. 물론 그 외에도 설교나 주석 등 여러 곳에서 창조가 언급되지만 단편적이고 간헐적일 뿐이다. 그런 자료들을 볼 때, 칼빈은 창조에 관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창조주는 어떤 분인가? 세계는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특성을 갖는가? 그런 점들을 중심으로 칼빈의 창조론을 살펴보자.

## 창조주

칼빈은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첫째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세계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다.”<sup>5)</sup> 당시에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두메르그가 말했듯이, 범신론이나 이원론, 유출설 등의 사상들을 부정하는 일이기도 했다.<sup>6)</sup> 그래서 칼빈의 창조론은 첫머리부터 ‘이교도들의 몽상들’, ‘하나님이 세계의 정신’이라는 ‘철학들’을 배격했다. 이것은 아마도 키케로의 *De natura deorum*(신들의 본성)을 암시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우리의 신앙의 제1조항을 온 힘을 기울여서 철폐하려고 했다.”<sup>7)</sup> 거기에 대해 칼빈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

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더 친밀하게 알아서 막연함 가운데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변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창조 이야기를 공표했던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다.<sup>8)</sup>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사실을 그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칼빈은 창에 관한 네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말한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요, 우리가 그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써, 몹시 번민하면서 결코 거기서 빠져 나올 수 없는 미궁 속에 갇혀 해매는 불쌍한 이방인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관해서 씨름하지 않게 해 주셨다는 것을 굳게 믿음이다.”<sup>9)</sup>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으로써 자신의 뜻을 알려 주셔서, 그의 백성들이 어렵고 무익한 논란 속에서 소모되지 않게 해 주셨다는 것이다.

그와 같이 칼빈에게서 창조주는 자상하고 부성적인 아버지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런 어조는 그의 창조론 내내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성이다. 그는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말한다. “그(창조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으로서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 그가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그의 부성적인 호의와 사랑으로써이며, 그 모든 것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의 선함이다.”<sup>10)</sup> 칼빈은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인간이 특별한 존재, 자연에 대한 주권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데서 찾았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써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가 현재의 지상생활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목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아담에게 셀 수

4.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dans la prédication de Calvin*(Berne : Peter Lang, 1978). 이 연구에서 인용되는 칼빈의 설교문들은 거의 이 책으로부터 재인용된 것임을 밝히며, 저자명과 쪽수를 명기한다.  
5. *Commentaire, Genèse, Commentaires Biblique ; Le Livre de la Genèse*, (Genève : Labor et Fides, 1961), 1 : 1, 25. Cf. *Institution*, I, 14/1, 2.  
6. E. Doumergue, *Jean Calvin,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IV, (Lausanne : Georges Bridel & Cie Editeurs, 1910), 104.  
7. 1er sermon sur le livre de la Genèse.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177.

8. *Institution*, 14/1.

9. 4e sermon sur la justification, *Opera Calvinii*, XXIII, 735.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180.

10. *Institution* (1536), *Opera Calvinii*, I, 63.

없는 재화를 풍부하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는 그것을 누림으로써 그분의 부성적 호의를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sup>11)</sup> 또한 인간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자연의 산물들이 주어졌다는 것도 창조주의 사랑의 근거가 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반궁하고 구차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은…… 그들이 구원받고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도록 풍요함을 선언하셨다.”<sup>12)</sup> 칼빈에게서 ‘땅과 땅의 실과들’은 ‘하나님의 호의의 증거’<sup>13)</sup>로 간주된다. 그는 말한다. “모세는 여기서 해와 달을 통해 땅을 비취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필요한 많은 것들을 가져다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선함을 드높이고 찬양한다.”<sup>14)</sup>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부유하고 호사스러운 가정의 아버지’와 같다.<sup>15)</sup>

그러나 창조주는 단지 자비로운 존재만이 아니다. 그는 또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칼빈의 시각이다. 그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칭인 엘로힘을 주석하면서 그 점을 밝혔다. 칼빈은 거기서 그는 유일신 하나님을 왜 복수명사인 엘로힘으로써 표현했는지를 설명한다. 루터는 이 명칭을 주석하면서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한다고 보았다. 칼빈 역시 그 같은 해석을 알고 있었으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벨리우스의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sup>16)</sup> 그러면서 칼빈은 엘로힘을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 그것은 모세가 신명을 복수로 쓴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보여 주셨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며, 그 능력은 “전부터 그의 영원한 본질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는

11. *Commentaire, Genèse 2 : 8, 48.*

12. *Commentaire, Genèse 1 : 28, 39.*

13. *Commentaire, Genèse 2 : 8, 47.*

14. *Commentaire, Genèse 1 : 14, 31.*

15. *Commentaire, Genèse 2 : 2, 43.*

16. *Commentaire, Genèse 1 : 1, 25.*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써 세상을 창조했다고 보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가 만드신 만물을 배정하는 것은 그의 손과 능력 안에 있기 때문이다.”<sup>17)</sup> 그는 천지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의 예를 든다. 그는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피조물들 속에서 찾으며, 그분이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한 예술가인지를 헤아리게 된다. 그분은 하늘에다 더 이상 신기한 것을 바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 배정하셨고, 궁창의 별들과 같은 어떤 별들은 그것들의 위치를 고정시켜서 일정한 자리를 지키게 하셨고, 행성과 같이 또 어떤 다른 별들은 여기저기를 떠다닐 수 있게 했으나, 그렇게 돌아다니면서도 그것들의 경계는 넘지 못하게 하셨다. 그와 같이 그분이 그렇게 큰 우주 전체의 덩어리를 지탱하면서도 하늘을 천천히 돌게 하시고, 그 회전을 24시간에 맞춰 놓으시고, 또 그와 유사한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다.”<sup>18)</sup>

요컨대 창조는 권능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의 사건이고, 그래서 그가 창조한 모든 세계는 그의 능력을 보여 준다. 그런 창조주의 능력은 에밀 두메르그가 칼빈의 창조론을 요약한 표현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요소였다.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써 어떤 특정한 시간에, 무로부터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창조는 우리에게 놀랄 만한 능력을 증거해 준다.”<sup>19)</sup>

## 창조의 시간

칼빈은 하나님이, 방금 인용한 두메르그의 표현대로 ‘어떤 특정한 시

17. *Institution, I, 14/22.*

18. *Institution, I, 14/21.*

19. E. Doumergue, 105.

간'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보았다. 창세기에서 모세가 '태초'라고 표현한 —칼빈은 오경의 저작자가 모세라는 속설을 받아들였다— 그 시간은 언제였을까? 칼빈은 그 시간을 당시로부터 6,000년 전, 즉 기원전 5,000년경으로 생각했다. 그것은 구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계산해 낸 결과로서, 기독교에서는 통상적인 견해이기도 했다. 그는 모세가 '태초'라는 창조의 시간을 밝힌 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즉, 세계는 출발이 있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다. 즉, 모세는 세계가 처음에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더 분명하게 밝혀 주었다.<sup>20)</sup>

칼빈은 창세기 주석에서 '태초에'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한다. 칼빈은 우선 그 용어를 그리스도와 관련시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 그것은 아마도 루터와 그리고 더 소급해서는 아우구스티누스를 겨냥한 것이다.<sup>21)</sup> 즉, 칼빈은 '태초에'를 그리스도론이나 삼위일체론적으로 해석하는 지나치게 신학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그냥 용어상의 의미 그대로 받아들였다.

칼빈은 그 본문을 주석하면서 특히 당시에 통용되던 창조 부정론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과 대결했다. 우선 그들 중에는 플라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창조 이전부터 이미 어떤 혼합된 물질이나 덩어리가 존재해 왔었으며, 창조는 다만 그런 우주의 단순한 변형이라고 주장했다. 칼빈은 '태초에'라는 말은 "세계는 결코 영원 전부터 있지 않았었다."는 의미라고 선언하면서 플라톤주의자들의 변형론을 배격했다.<sup>22)</sup>

20. *Institution*, I, 14/1.

21. *Commentaire*, Genèse 1:1, 24. R. Stauffer, "L'exégèse de Genèse 1:1-3 chez Luther et Calvin," *Interprètes de la Bible*(Paris: Beauchesne, 1980), 73.

22. *Commentaire*, Genèse 1:1, 25. R. Stauffer, *Ibid.*

마찬가지로 칼빈은 창조를 부정하는 철학자들 중에서도 '가장 지혜롭고 정교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와, 그리고 그의 견해를 통속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배격했다. 그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창조를 부인하기 위해서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조롱이 섞인 질문을 던진다. 즉, 알이 있었기 때문에 닭이 나온 것이냐, 닭이 있었기 때문에 알이 나온 것이냐, 결국 알이든 닭이든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냐면서 창조를 부정했던 것이다.<sup>23)</sup> 또한 칼빈은 에피쿠로스를 따르는 원자론자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비판한다. "그들은 세계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제대로 말하는 것 같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위엄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부터 공중을 떠다니는 작은 물질들이 있었는데, 우연한 계기에 그것들이 모여져서 세계가 이뤄진 것이며, 태양도, 달도 별들도, 지구나 나무들,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sup>24)</sup>

또한 칼빈은 창조의 시기 문제와 관련하여, 창조주의 게으름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반박했다. 그들은 창조가 6,000년 전에 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전에는 무엇을 하였느냐고 야유한다. 거기에 대해 칼빈은 "하나님이 창조의 시기를 왜 것처럼 연기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인간의 정신으로는 알 수도 없고, 캐물을 수도 없는 문제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호기심이 많은 자들을 위하여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는 옛 위인의 말로 반박했다.<sup>25)</sup>

칼빈은 창조의 시기뿐만 아니라 창조의 기간에 관해서도 설명한다. 즉, 하나님이 얼마 동안에 걸쳐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창조에 걸

23. *Sermon sur la Genèse*, fo. 4. R. Stauffer, *Ibid.*, 75.

24. *Sermon sur la Genèse*, fo 4 vo. R. Stauffer, *Ibid.*, 75. Cf. *Institution*, I, 5/4.

25. *Institution*, I, 14/i.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게으름을 피우신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 빠져서 열심인 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다." *Sermon du lundy 4e jour de septembre, 1559, Sermon 1er sur 1:1-2, Supplementa Calviniana*, XI/1, 6.

린 시간' 문제이다. 칼빈은 창세기 1장에 따라서 하나님이 6일만에 걸쳐서 창조하셨다고 했다. “모세가 세상의 건축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6일 동안에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한 목적과 같다. 즉 그런 이유로써, 우리를 모든 잘못된 상상에서 떠나게 하며…… 그분의 작품을 옛세 동안에 나누어 만드심으로써 우리의 전 생애 동안 싫증 내지 않고 그분 그대로를 명상하게 하셨던 것이다.”<sup>26)</sup>

물론 칼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세상을 단번에 창조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집회서의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창조하셨다”(18:1)는 말씀도 알고 있었다.<sup>27)</sup> 그러나 칼빈은 창세기 1장의 6일간의 창조를 지지하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칼빈이 경우에 따라 다르게 말하지만, 결국은 두 가지로 집중되고 있다. 하나는, 세상의 창조가 6일간의 과정으로 진행된 것은 최종적으로 창조된 인간이 자연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배려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본문들이 그것을 말해 준다. “세상의 창조를 옛세 동안에 나누어 하신 것은 이유 없는 일이 아니었다. 그분은 그 전체를 쉽게 한순간에 완성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금씩 진행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분의 섭리와 그가 우리에게 대해 가지고 있는 부성적 관심을 보여 주시기를 원하셨다.”<sup>28)</sup> “그런데 창조된 것들의 순서에서 우리가 명민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이다. 그분은 세상을 부요하게 하시고 모든 재화들로써 풍성하게 해 주시기 전까지는 아담을 창조하지 않았다.”<sup>29)</sup>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가 이루신 (창조) 순서에 의하여 주님이 친히 보여 주셨다.”<sup>30)</sup>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깨닫고, 명상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몇 단계로 나눠서 창조하심으로써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천천히, 차례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묵상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전능과 위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여기서 세상이 한 순간에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오류는 분명하게 배격된다. 그래서 모세가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번에 완전하게 하신 것을 6일만에 걸쳐서 나누어 놓았다는 것도 너무나 허황된 생각이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은 그의 사역을 우리들의 능력에 맞추기 위해서 6일이라는 기간을 취하셨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비취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소홀하게 지나치기 때문이다. …… 하나님은 그런 악을 고쳐 주시기 위해서 매우 적절한 처방을 내려 주셨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창조를 어떤 단계들을 통해 구별하심으로써, 마치 우리들에게 손을 내민 것처럼, 우리들을 멈춰 서게 하셨고,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게 하셨던 것이다.”<sup>31)</sup> 칼빈은 안식일의 창조에 대해 설명하면서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세우는 데 6일의 기간을 사용하셨다. 그것은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분의 작품들을 숙고하게 하기 위해서였다.”<sup>32)</sup>

## 무로부터의 창조

칼빈은 전통에 따라서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를 믿었다. 그는 말한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써, 무로부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sup>33)</sup> 그는 일관되게 그 같은 ‘무로부터의 창조’를 지

26. *Institution*, I, 14/2.

27. *Commentaire*, Genèse, 1:5, 28.

28. *Institution*, I, 14/22.

29. *Institution*, I, 14/2.

30. *Institution*, I, 14/22.

31. *Commentaire*, Genèse, 1:5, 28.

32. *Commentaire*, Genèse, 2:3, 43.

33. *Institution*, I, 14/20.

지했고, 설교나 주석 등 여러 곳에서 주장했다. “우리는 만물이 무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말씀 외에는 만물에 기원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물이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것도 바로 그 방법에 의해서입니다.”<sup>34)</sup> 또한 주석에서, 칼빈은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했다는 사실을 1장 1절의 동사 ‘바라’(bara)로서 입증하려고 했다. 그는 말한다. “예언자(모세)는 ‘형성하다’ 혹은 ‘만들어내다’라는 뜻의 ‘야짜르’(iazar)를 쓰지 않고, ‘창조하다’, ‘존재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바라’를 사용했다. 그래서 참된 의미는 세상이 무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혼란된 덩어리나 재료가 영원 전부터 존재했었다고 믿는 사람들의 허영은 배격된다.”<sup>35)</sup>

칼빈이 무로부터의 창조를 강조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창조주의 무한한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 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sup>36)</sup> 그는 말한다.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지혜를 묵상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감각과 정신을 잃게 만들 정도의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무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할 때, 우리가 놀라서 정신을 잃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sup>37)</sup>

사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칼빈에게 있어서 ‘무로부터의 창조’는 고대 세계와 희랍의 여러 그릇된 사상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주제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것은 우선 유출설

34. 18e sermon sur la Genèse, fo. 41 vo.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217. 그 외에도 무로부터의 창조를 지지해 주는 설교들—199e sermon sur le Deutéronome, *Opera Calvini*, XXIX, 211. 13e sermon sur I Corinthien 10 et 11, *Opera Calvini*, XLIX, 741. 5e sermon sur la Genèse, 24 vo 등.

35. Commentaire, Genèse 1 : 1, 24.

36.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181.

37. 148e sermon sur le livre de Job, *Opera Calvini*, XXXV, 367.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181.

(emanation)을 겨냥한다. 유출설은 이 세상의 만물은 영원한 신적인 세계로부터 흘러나온 것으로서, 신의 본성을 갖는다는 사상이었다. 그것은 칼빈의 신학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칼빈에게서, 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은 근본적인 질적 차이를 가진다. 즉, 신과 세상 사이에는 엄연한 단절이 존재한다. 그러나 유출설은 세상에 신적 본성을 부여함으로써, 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칼빈은 ‘무로부터의 창조’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니이젤 역시 그 점을 잘 보았다. 그에 따르면, 칼빈에게서 창조는 무로부터 되었다. 그것은 영원한 신적 본질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전까지는 없던 것을 만들어 낸 사건이다. 그래서 칼빈은 유출설을 배격했다는 것이다.<sup>38)</sup>

또한 칼빈의 ‘무로부터의 창조’는 유출설과 관련된 여러 사상들, 특히 워필드가 지적했던 대로, 범신론이나 마니교의 이원론을 부정했다.<sup>39)</sup> 주지하듯이, 범신론은 모든 만물에 신성이 내재한다는 것이고, 마니교의 이원론은 세계를 선과 악이라는 두 개의 기원에서 보며, 세상의 선한 것들은 선으로부터, 악한 것들은 악으로부터 흘러나왔다고 설명한다. 그 두 사상은 모두 유출설과 내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유출설이 부정되면 함께 자연적으로 부정되는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유출설을 배격했던 칼빈의 ‘무로부터의 창조’는 결과적으로 범신론이나 이원론 역시 배격했던 것이다.

칼빈은 ‘무로부터의 창조’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도 역시 창조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사상, 즉 세상이 무형의 물질이나 덩어리로부터

38.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83), 59-62.

39. B. B. Warfield, “Calvin’s doctrine of creation” in *Princeton Theological Review*, 1915, réed. in *Calvin and Calvinism*(New York : 1931), reprint (New York : Baker Book House Company, 1991), 287-349.



의 창조되었다는 사상을 잘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설교 같은 데서는 때로 그 사상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스토페르에 따르면, “칼빈은 창조를 무형의 물질 또는 혼합된 덩어리로부터의 창조라는 히브리적 개념에 호의적”이기도 했던 것이다.<sup>40)</sup> “만일 사람들이 이 세상이 무엇으로부터 창조되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태초에 놓으신 것은 하나의 혼합된 물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이었고, 거기에는 오직 심연과 혼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런 기원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sup>41)</sup>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유로부터의 창조’가 아닌가? 그것은 그의 ‘무로부터의 창조’ 개념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칼빈은 그런 점을 의식해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나간다. 즉, 칼빈은 세상이 거기로부터 만들어진 최초의 원인 물질, 그것마저도 창조된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즉, 하나님의 창조는 그 기원적 원인 물질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sup>42)</sup> 둘째 날부터는 그것으로부터 배열하거나, 구별하거나, 질서를 부여하거나, 또는 거기로부터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는 ‘유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것이다. 칼빈은 그런 점을 다음과 같이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태초의 혼란 가운데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이 형태도 없고, 모양도 없는 하나의 덩어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잘 배열하기에 앞서서 그런 혼

40.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181.

41. 144e sermon sur le livre de Job, *Opera Calvini*, XXXV, 321.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216.

42. Commentaire, Genèse 1 : 1, 24. 여기서 칼빈은 하늘과 땅이 태초에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것처럼 ‘세련되고’, ‘정리된’ 채로가 아니라 “혼합된 채로 한꺼번에 창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최초의 원인물질은 하늘과 땅이 뒤섞여 있는 덩어리로서, 창조는 하나님이 태초에 그것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합된 덩어리를 창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sup>43)</sup> “우리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혼합된 물질로부터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심연과 같았을 때, 그리고 땅들이 물들 가운데 뒤섞여 있을 때, 이미 창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진 하나의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듬어지고, 배열되고 질서를 갖춘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그 혼합된 물질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돈해서,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헤아릴 수 없는 선함이 빛나는 것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sup>44)</sup> “그러나 나로서는, 창조를 다섯째 날의 사역에 국한시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나는 창조는 세상의 근원으로서 존재했던 그 혼합된 덩어리에 의존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래들과 다른 물고기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창조의 시작이 형상을 취한 그 순간부터가 아니라 그것들이 무로부터 만들어진 우주적 몸체 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sup>45)</sup>

## 진화인가, 창조인가?

칼빈의 창조론을 연구한 벤자민 워필드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주장을 한 적이 있다. 그것은 “칼빈이 진화론에 관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진화의 교리를 가르쳤다.”는 것이었다.<sup>46)</sup> 16세기의 칼빈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알았을 리는 없다. 그러나 그의 창조론을 보면, 진화론적인 사상을 보여 준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단

43. 1er sermon sur le Genèse, fo. 5 vo.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216.

44. 8e sermon sur la Genèse, fo. 37 vo.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216.

45. Commentaire, Genèse 1 : 21, 33-34.

46. B. B. Warfield, 305.



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시 이 점은 논란의 여지가 많고, 따라서 존 머레이<sup>47)</sup>나 리샤르 스토페르<sup>48)</sup> 같은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다. 그들은 워필드의 해석을 거부하면서, 칼빈이 진화론을 가르쳤다가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에 의한 창조를 견지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서는 이 논쟁을 중심으로, 과연 칼빈이 진화론을 가르쳤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론을 가르쳤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워필드는 칼빈의 창조론에서 “무로부터 하늘과 땅을 창조한 창조의 원초적 행위(primal act)와 그렇게 창조된 물질을 가지고 형태를 부여한 후속적 행위들(subsequent acts)”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칼빈에게는, 특히 주석 1:20, 21 등에서, 그 두 행위가 모두 창조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무로부터의 창조’와 ‘물질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materia)가 공존하고 있다고 보았다. 워필드가 칼빈에게서 진화론적 요소를 발견하는 것은 그 두 번째 부분에서이다. 그의 설명을 직접 들어 보자.

“칼빈의 창조교리가 만일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진화론적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모든 것에 대한 ‘약속과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 ‘분화되지 않은 물질’은 하나님의 간단한 명령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러나 그 이후 생겨나게 된 모든 것은 그 세계의 근원적 재료의 변화로써, 그것의 고유한 힘들의 상호작용으로써 생겨났다. 물론 그 힘들은 하나님과 별도의 것들은 아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prima causa omnium’(만물의 제일 원인)이고, 그리고 그것은—세계 물질 안에서—모든 것들의 존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다. 그것은

47. J. Murray, “Calvin’s doctrine of creation,”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1954, 21-43.

48. R. Stauffer, “L’exégèse de Genèse 1/1-3 chez Luther et Calvin,” 77-79, 그리고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181-183.

오히려 그 세계 물질의 모든 변화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옹호하시고 다스리시는 손길 아래서 일어나며, 또한 그 변화들의 궁극적인 이유를 그분의 의지 가운데서 찾는다라는 의미에서이다. 그러나 그 변화들은 그 이유들을 과정적으로는 ‘두 번째 원인들’에서 찾는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 보통 진화론일 뿐만 아니라 순수한 진화론이다.”<sup>49)</sup>

결국 워필드는 칼빈은 하나님이 창조한 태초 세계의 원인 물질에는 자체적인 변화와 생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로부터 일어난 변화에 의하여 새로운 생물들이 생겨났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진화론적인 사고였으며, 칼빈은 진화론을 알지도 못했지만 이미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머레이는, 칼빈에게서 창세기 1장의 그 원인 물질이 뒤이은 창조들의 재료였다고는 해도, 그것이 새로운 생명을 낳는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했다. 머레이는, 칼빈이 비록 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의 사역에 의한 ‘ex materia naturaliter inhabili’(무력한 자연의 재료로부터의), ‘간접적 창조’라는 사상을 수호했다는 것이다.<sup>50)</sup> 즉, 그것이 진화론적인 변화와 생성이 아니라, 2차적 물질들을 사용한, 간접적이긴 해도 하나님의 ‘창조’였다는 것이다. 리샤르 스토페르 역시 머레이의 해석에 동의한다.

스토페르는 쟁점이 되는 그 세계의 원인 물질—칼빈이 “온 세상의 씨앗”(semence de tout le monde/ totius mundi semen)이라고 표현한—한 가지만으로 보면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러나 칼빈 사상 전체를 가지고 본다면 머레이의 견해가 옳다고 보았다.<sup>51)</sup> 그는 말한다. “워필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종교개혁자에게서 그 물질과 파생물들은 창조적인 어떤 잠재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언제나

49. B. Warfield, 304-305.

50. J. Murray, 40-41.

51. R. Stauffer, “L’exégèse de Genèse”, 77-78.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주권적으로 개입해서, 이미 창조된 것들로부터 어떤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 내시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빛이 어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단지 창조주의 탁월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권능의 결과로 된 것일 뿐이다.”<sup>52)</sup> 그래서 칼빈에게서는, 하나님이 이미 창조한 어떤 ‘본체’로부터 새로운 존재들을 창조한 것은 그 ‘본체’의 창조와 똑같은 하나의 기적이라는 것이다. 스토페르는 칼빈의 창세기 설교를 예로 든다. “하나님은 물고기들뿐만 아니라 새들과 날아다니는 것들까지 물들로부터 생겨나게 했을 때, 즉 거기로부터 그것들에게 기원을 제공했을 때 또 하나의 기적적인 작품들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에서 이렇게 말해집니다. ‘물들은 번성케 하라.’ 이는 물들은 어떤 외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 물들이 움직이는 피조물들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sup>53)</sup> 스토페르는 결론을 짓는다.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무로부터의 창조로부터 유로부터의 창조까지, 직접적인 창조부터 간접적인 창조까지, 창조주의 사역은 언제나 하나의 기적이며, 그것으로써 그의 크심과 능력을 증명하신다.”<sup>54)</sup>

이상에서 볼 때, 칼빈이 창조의 두 번째 영역에서, 즉 세계의 원인물질이 창조된 이후 그 물질로부터의 후속적인 창조사역들에서 과연 진화론을 가르쳤는가 하는 논란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즉, 워필드의 주장은 무리한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물론 워필드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칼빈은 세계의 그 근원물질을 ‘온 세상의 씨앗’(semence de tout le monde, 라틴어로 totius mundi semen)이라고 불렀고,<sup>55)</sup> 또한 ‘세상의 근원’(source du monde)이라고도<sup>56)</sup> 불렀다. ‘씨앗’이나 ‘근원’은 모두 그 안에 새로운 것

52.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183.

53. *Ibid.*, 79. 5e sermon, Fo 24 vo.

54.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183.

55. *Commentaire, Genèse*, 1 : 1, 25.

을 잉태하고, 파생시키는 잠재성을 가지는 것들이다. 그것들은 그것 자체로서 이미 그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존재의 생성과 진화의 역동성을 보여 주는 은유(métaphore)들이다. 그래서 그것 자체로서만 보면, 그런 원인물질로부터의 창조는 내적으로는 진화력에 의한 것으로서, 진화의 한 형태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칼빈은 그 용어들 말고도 창세기 주석 2 : 5 같은 데서도, 태초의 원인 물질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 ‘물’의 한 형태인 ‘습기’에 관해 설명하면서, 그 점을 암시하기도 했었다. “거기에는 그것들의 본성을 유지시켜 주는 생기가 지속되고 있었다.”<sup>57)</sup>

그러나 역시 칼빈이 창조론에서 칼빈이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그것을 가르쳤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그것이 훨씬 더 현대적이고, 자연과학의 이론들과도 배치되지 않는 칼빈의 사상을 드러낼 수 있는 해석이기는 하다.<sup>58)</sup> 그러나 이 논쟁과 관련해서는 머레이나 스토페르의 해석이 타당하다. 다음과 같은 칼빈 자신의 설명은 논쟁을 잠재울 만한 확실한 답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첫째 원인 그 자체로서 충분하며, 둘째나 세 번째 원인들은 거기로부터 차용해 온 것일 뿐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런 수단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무력하고 불완전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드셨기 때문에 그런 피조물들을 사용하셨던 것이다.

56. *Commentaire, Genèse*, 1 : 21, 33.

57. *Commentaire, Genèse* 2 : 5, 45.

58. 칼빈과 진화론의 관계는 창조론에서보다는 섭리론에서 잘 찾을 수 있다.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적 창조(creatio continua)로 보기도 했는데, 이것은 현대의 진화론적 세계관을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 준다. 하나님은 태초에 유일 회적으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를 이뤄 나간다. 즉, 자연에서의 생성과 소멸, 변화와 변이, 그리고 진화라는 현상의 배후에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작용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와 자연과학, 창조론과 진화론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 이오갑, “칼빈의 섭리론”, 제1회 전국 조직 신학자 대회 발표논문, 2006. 4. 「자료집」, 32, 42.

하나님께서서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셨다. 이것은 풀과 나무들이 그때 창조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 스스로 번식해 나가는 생명력을 주셔서 그 종이 영속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은 말씀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다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다. 즉, 그는 그의 영원한 명령을 먼저 선포함으로써, 땅과 거기서 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게 하셨으며, 언제나 거기에 따르게 하셨다.”<sup>59)</sup>

### 창조와 구속

칼빈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르베투스의 사상을 배격했다. 세르베투스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함으로써 반(反)삼위일체론의 입장에 섰던 인물이었다. 그는 창조에서의 로고스의 신적 사역을 거부했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성, 즉 영원성을 부인했다. 칼빈은 말한다. “성 요한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증언했다. 세상은 말씀의 능력으로 시작되었고, 또 동일한 말씀으로써 완성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사도들은 옳은 이유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것이 그를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했다.”<sup>60)</sup>

이 인용문에서 보듯이 칼빈에게 있어서 ‘말씀’은 요한의 로고스 기독교론을 따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칼빈에게서 창조론은 곧 기독교론,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이기도 했던 것이다. 실제로 에밀 두메르그가 지적한 바와 같이, 칼빈은 “창조에서 그리스도의 자리를 창조론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루는 데서 말하고 있다. 세상의 창조에

59. Commentaire, Genèse 1 : 11, 30.

60. Commentaire, Genèse 1 : 3, 26.

서 모세는 언제나 말씀을 앞자리에 놓는다. 농담꾼들이나 수다쟁이들은 재간이나 부리면서 말씀은 계명을 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들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해석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세계가 성자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그리고 그가 자신의 고결한 말씀으로써 모든 것을 유지하신다고 말한다.”<sup>61)</sup> 즉, 칼빈에게서 창조의 문제는 창조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루는 자리, 곧 삼위일체론에서 다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런 예는 또 찾아볼 수 있다. 즉, 칼빈은 같은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강연’에서도 다루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한 번에 창조되었던 것처럼, 바로 그것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고 그 방식으로써 모든 것은 존재하고 보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를 숙고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시작과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으로써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sup>62)</sup>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구속주이며, 구속된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구속주일 뿐만 아니라 창조의 사역에도 능동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창조의 ‘머리’ 우주의 ‘머리’가 되셨던 분이기도 하다. 칼빈은 창세기 설교에서 말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므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머리를 이루셨습니다.”<sup>63)</sup>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속에서 창조와 구속이 일치를 이루는 통전적인 하나님, 세상과 우주의 ‘주’이며 ‘회복자’이다. “세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세계가 자신의 은혜에 의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창조 시에 활

61. Doumergue, 105-106. *Institution*, I, 13/7.

62. Congregation sur la divinité de Jésus-Christ, *Opera Calvini*, XLVII, 478-479.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180.

63. 8e sermon sur l'Épître aux Ephésiens, *Opera Calvini*, LI, 344.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215.

동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의 능력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분은 두 번째(창조)에는 그의 구속의 능력으로써 아담의 죄에 의해서 들어온 무서운 붕괴와 혼란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그 일을 계속하십니다.”<sup>64)</sup>

그와 관련하여, 니이젤은 칼빈의 창조론에서 그 같은 그리스도 중심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점을 포착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역에 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인식론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칼빈의 창조론을 다루는 앞자리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성서의…… 증거의 핵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신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을 찾게 된다. 그런데 신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의 창조자로 다가오신다. 성서의 일반적인 가르침은 좁은 의미에서 은혜전달과 같은 성서의 중심에 관계되어 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창조 역사와 신의 구속행동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식할 수 있는 것이다.”<sup>65)</sup> 실제로 칼빈 역시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역사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회복된 심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늘이 해와 별들의 빛으로써 우리의 눈을 밝혀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시며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마음 속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다.”<sup>66)</sup>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특전들과 함께 오성과 이성을 받았지만 그 자신의 잘못으로 타락하였으며, 그 결과 그가 얻었던 모든 재화들을 박탈당했으며,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자비로써 인간은 그가 전에 잃었던 생명을 되찾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sup>67)</sup> 즉,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회복된 자

64. 13e sermon sur la Genèse, fo. 15. vo. 16.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180.

65. W. Niesel, 58-59.

66. Commentaire, Genèse, préface, 21.

들이 우주 만물들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인식할 수 있으며,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취 주어라’ 하며, 그리스도께서 창조 시에 얻었던 ‘지성의 빛’과 ‘많은 특전’들을 되찾아 주어라 한다는 것이다.

## 창조와 성령

칼빈은 ‘말씀을 통한 창조’와 함께 ‘성령’의 창조를 말한다. 앞에서 인용했던 대로,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써, 무로부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sup>68)</sup>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에는 성령이 참여했고, 따라서 칼빈에게 있어서 창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적 사역이었다고 해석된다.<sup>69)</sup> 그러나 칼빈은 이 사상을 발전시키지는 않았다. 단지 설교에서 한 차례, 그리고 성서주석에서도 한 차례씩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공통적으로 창세기 1:2의 ‘하나님의 신’을 설명하는 자리에서였다. 먼저 설교를 찾아본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영원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성령) 우리가 여기서 그 상태를 보고 있는 세상의 창조 이전에 존재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결론을 잘 내려야 합니다. 지혜도 역시 영원한데,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부와 마찬가지로 성자에게도 돌려지기 때문입니다.”<sup>70)</sup>

창세기 주석에서는 창조에서의 성령의 사역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서술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정돈하고 배열하기 전에는, 세상은

67. Commentaire, Genèse, préface, 21.

68. *Institution*, I, 14/20.

69. Cf. F. Wendel, *Calvin, Sources et évolution de sa pensée religieuse*, 2e Ed., (Genève: Labor et Fides, 1985), 126.

70. 1er sermon sur la Genèse, fo 5 vo.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161.

형태도 없고 질서도 없는 하나의 덩어리였다고 이해한다. 이제는 그는 (모세) 성령의 능력이 그 세상을 받쳐 주는 데 필요했었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질서도 없는 덩어리가 어떻게 유지됐느냐는 의문을 갖기 때문이다. 그 이유에서 그 덩어리가 형태도 없었지만, 그는(모세) 그것이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의 비밀의 효력에 의해서 굳건하게 지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적어도, 만일 그런 혼합물이 아무렇게나 무너져 내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비밀의 영력이 필요했었다면, 그것의 너무나 잘 배열된 아름다운 질서, 그것이 존속되기 위해서 어떻게 다른 곳으로부터 활동력을 빌리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것이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당신이 영을 보내서, 모든 것이 창조되며, 당신이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합니다(시 104 : 30). 그리고 또 반대로는 이렇게 말해진다. 주가 그의 영을 거두시면, 그것들은 무너지고 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시 104 : 29).<sup>71)</sup>

이런 본문들을 볼 때, 칼빈은 창조에서의 성령의 참여와 사역을 인정했다. 그는 그것을 태초의 말씀, 로고스, 곧 성자와 함께 다름으로써, 창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그런 사상은 상세하게 발전되지는 않았다.

## 창조된 세계의 구조

칼빈은 창조된 세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는 우주를 어떤 모양으로 묘사했으며, 또 그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존재한다고 여겼을까?

칼빈은 그에 관해서 성서에 나타난 히브리적 개념에 충실했다. 그래서 그는 세계 또는 우주를 궁륭, 다시 말해서 둥근 지붕 혹은 둥근 천정

71. Commentaire, Genèse 1 : 2, 26.

의 형태를 지닌 것으로 생각했다. 우주의 창조는 하늘과 땅을 분리해서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과 다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말한다. “하늘이 땅과 뒤섞이지 않도록 지구를 완전히 둘러싼 텅 빈 공간이 둘째 날의 작품이었다. 궁창(étendue)라는 말은 대기권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는 모든 공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만일 누군가가 이 텅빈 대기권이 이미 존재했던 것이 아니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즉, 물들이 완전히 뒤덮지는 않았어도 이전에는 단지 뒤섞인 혼합물질일 뿐이었던 곳에, 그때 그런 공간이 (생기도록) 명령되었다는 것이다.”<sup>72)</sup>

그러나 칼빈은 성서가 말하는 식을 그대로 따르지만은 않는다. 그는 원시세계를 구성하고 있던 물이 갈라져서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정확히 말하면 하늘 위의 물이란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구름’ 혹은 ‘수증기’일 뿐이라고 했다. “그것은 (하늘 위의 물) 상식적으로는 이상하고 또 완전히 믿기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 천문학이나 정교하고 어려운 다른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찾아봐야 한다. 우리는 공중에 떠다니는 구름들이 마치 그것들이 우리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래도 구름들은 우리에게 숨쉴 공간을 남겨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것들에게 우리의 위에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구름들이 갑자기 쏟아져서 우리를 집어삼키는 일이 없도록 그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써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73)</sup> 그렇다면 모세는 왜 있지도 않은 하늘 위의 물을 말했을까? 칼빈은 여기서 유명한 그의 ‘적응’의 개념을 다시 가져온다.<sup>74)</sup> 즉, 그것은 가장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통념에 맞추기 위

72. Commentaire, Genèse, 1 : 6, 28.

73. Commentaire, Genèse, 1 : 6, 28-29.

74. Cf. F. L. Battles, “God Was Accommodating Himself to Human Capacity” in *Interpretation* 31 (Richmond), 1977, 19. 이종태 옮김, “하나님께서서는 자

해서라는 것이다. “모세는 그의 문장을 가장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수준에 맞추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들로부터 모든 것이 다 가르쳐지지 않았다고 변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비와 우박과 눈을 만들어 주는 수증기들입니다.”<sup>75)</sup>

칼빈은 그렇게 만들어진 하늘, 창공은 회전한다고 믿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칼빈은 우주의 북쪽과 남쪽에 두 개의 극이 있으며, 그 두 극을 잇는 축을 중심으로 마치 마차의 두 바퀴의 축을 중심으로 바퀴가 돌아가듯 돈다고 설명한다. 그의 창세기 설교를 들어 보자. “하늘은 거기에 있는 극의 주위를 돕니다. (칼빈은 청중들에게 북극을 암시한다.) 마차의 바퀴들에는 가운데를 지나가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바퀴들이 그 나무가 가운데 나 있는 구멍을 통해 돌아가는 것처럼 하늘도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북풍(bise, 북극을 말하는 뜻) 옆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은 분명히 (북)극성입니다만 그것이 바퀴 한가운데 있는 축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창공이 그 축을 중심으로 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는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인데, 바로 남극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늘 역시 아까 말했던 대로 바퀴가 바퀴에 달린 나무 주위를 도는 것처럼 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늘의 운동을 말할 때는,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태양의 운행과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태양은 자기 스스로 도는 특별한 운행이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하늘의 창공 전체가 도는 우주적인 운동입니다.”<sup>76)</sup>

신을 인간의 한계에 맞춰 조정하셨다.” 「칼빈신학의 이해」(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75. 3e sermon sur la Genèse, fo 13-13 vo.,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184.

76. 95e sermon sur Job, *Opera Calvinii*, XXXIV, 429-430.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184-185.

그렇다면 칼빈은 그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했을까? 그는 우주 공간 안에 태양, 달, 별과 같은 발광체가 있다고 보았다.<sup>77)</sup> 앞의 인용문에서 보았듯이 태양은 큰 발광체로서 자전을 하고 있으며, 달도 역시 약하기는 해도 발광체로서 빛을 비추는 존재로 묘사된다. “천문학자들은 그것이(달) 어두운 물체라고 말하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한다. 그러나 나는 달이 캄캄하거나 암흑과 같다는 말에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첫째로, 그것은 게다가 불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성질에 참여하는 물체일 것이다. 그 이유에서 그것 역시 빛을 낸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뚫고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빛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태양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다.”<sup>78)</sup>

별들 중에는 항성, 즉 고정된 별들과 선회하는 행성들이 있다. 칼빈은 단언한다. “창공에는 마치 못을 박아서 고정시켜 놓은 것처럼 멈춰 선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운동들을 가진 일곱 개의 행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공이 돌고 선회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붙은 것처럼 자기 장소에서 결코 움직이지 않는 별들이 있습니다.”<sup>79)</sup> 또한 칼빈은 창조주의 훌륭한 예술가적 솜씨를 예찬하면서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피조물들 속에서 찾으며, 그분이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한 예술가인지를 헤아리게 된다. 그분은 하늘에다 더 이상 신기한 것을 바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 배정하셨고, 궁창의 별들과 같은 어떤 별들은 그것들의 위치를 고정시켜서 일정한 자리를 지키게 하셨고, 행성과 같이 또 어떤 다른 별들은 여기저기를 떠다닐 수 있게 했으나, 그렇게 돌아다니면서도 그것들의 경계는 넘지 못하게 하셨다.”<sup>80)</sup>

77. Commentaire, Genèse 1:14, 30.

78. Commentaire, Genèse 1:15, 32.

79. 27e sermon sur l'Harmonie des trois Evangélistes, *Opera Calvinii*, XLVI, 327.

그렇다면 칼빈은 이미 1543년에 출간되었던 「천체들의 회전운동에 관하여」(*De revolutionibus orbium coelestium*)의 저자 코페르니쿠스나 그 외의 근대 과학적 천문학자들의 이론을 알고 있었을까? 아마도 어느 정도는 알았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천체에 관한 성서의 설명과 천문학자들의 설명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차이를 매우려고 했다. 그것 역시 그의 ‘적응’ 개념을 가지고서였다.

“모세는 철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자연의 본성들에 관하여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그는 행성과 별들의 위치를 하늘의 창공에다 정해 준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공간들을 세분화하면서, 별들이 그 창공에 차지하는 고유한 자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모세는 커다란 두 개의 빛을 말한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가장 멀리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작게 보이는 토성이 달보다 더 크다는 것을 생생한 증거를 가지고 주장한다. 그 차이는 이것이다. 모세는 글을 읽지 못하거나 지식이 없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통속적으로 기록했으나, 철학자들은 인간의 천재성과 명석함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엄청난 노력을 가지고 추구했다는 것이다.”<sup>80)</sup>

그러나 칼빈이 코페르니쿠스가 가져온 이론을 알았다는 것과 받아들였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간단히 말해서, 칼빈은 코페르니쿠스가 가져온 과학적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알고는 있었다고 할지라도, 단지 소문으로 들어서 아는 정도였는지 아니면 그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모르는 척 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단지 분명한 것은 칼빈이 새로운 과학적 세계관이나 그것의 탐구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sup>82)</sup>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결국 스토페르가 잘 말했듯이, 칼빈의

80. *Institution*, I, 14/21.

81. *Commentaire*, Genèse 1 : 16, 32.

82. Cf. *Commentaire*, Genèse, 1 : 16, 32.

세계관, 그가 묘사한 우주관은 근대 과학의 도래에 의해 부정될 운명을 맞게 된다. “칼빈의 우주관은 거의 모든 면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로부터 고대로부터 이어받은 세계관을 뒤바꿔 놓았던 과학적인 발견들에 의해 부정되었다.”<sup>83)</sup>

그렇다고 할지라도 칼빈의 세계관은 전혀 무익한 것일까? 칼빈이 성서의 가르침에 기초해서, 그리고 당시의 전통적 통념에 따라서 과학적 사실처럼 보이는 어떤 것들을 가르쳐 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그것을 과학적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칼빈이 하려고 했던 것은 당시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사실 자체를 전파하려고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알려 줌으로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었다.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고, 바로 그 점을 파악하는 것이 그의 신학을 이해하는 일이며, 바로 그것이 오늘날에도 칼빈의 신학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스토페르는 바로 그 점을 강조했다. “칼빈의 우주관이 기한이 만료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극도로 교훈적이다. 하나님을 과학의 영역에서 축출해 버린 20세기의 독자에게, 그의 우주관은 아마도 소박함을 가진 것이겠지만 그러나 언제나 힘있게, 자연적 현상들 배후에는 창조주가 계시며, 그분이 존재하도록 호명하셨던 우주에서 활동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다.”<sup>84)</sup>

## 창조의 완전성

칼빈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아름답고, 완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과 다양성, 완벽한 풍

83.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190.

84. *Ibid.*



부함으로써 장식하셨고, 그래서 마치 있어야 할 모든 것을 갖춘 거대하고 화려한 궁전같이 꾸미셨다.”<sup>85)</sup> 칼빈은 창조된 세계를 ‘너무나 훌륭한 극장’<sup>86)</sup>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이처럼 아름답고, 화려하며, 웅장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 궁전 혹은 극장과 같이 아름다운 곳에 아주 다양하고 특징 있으며, 서로 조화와 질서를 이루며 존재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생물과 무생물을 창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을 무로부터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모든 종류들의 동물들과 영혼 없는 피조물들을 만들어 내셨으며, 놀랄 만한 질서로써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의 무한한 다양성을 이루어 내셨으며, 그분은 각 종류들에게 각자의 본성을 갖게 하였고, 그것들에게 직무를 부여하셨으며, 그것들의 위치와 처소를 정해 주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썩게끔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질서를 갖춰 주셨고, 그것들이 마지막 날까지 존속되도록 해 주셨다.”<sup>87)</sup>

그래서 이 세상은 가장 완전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곳이 되었다. 칼빈은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에는 그 균형과 조화에 있어서 하나도 덧붙일 것이 지극히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sup>88)</sup>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배열하신 이 탁월한 예술가를 찬양하면서, 모든 것은 다 함께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너무나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로써 화답하고 있다.”<sup>89)</sup>

칼빈에게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한 나머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입은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다른 방식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세상의 형상(image)으로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나타나서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 주셨고, 그 형상 가운데서 자신을 가지적이 되게 하셨다.”<sup>90)</sup> 세상은 또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진귀한 옷’이나,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학교’라고 비유되기도 했다.<sup>91)</sup> 같은 이유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비취 주는 ‘거울’이라고 표현되기도 했다. 칼빈은 1542년의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찾아볼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를 아는 데 필요한 방식입니다.”<sup>92)</sup>

그와 같이 세상은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형태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창조된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의 영광과 능력을 숙고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칼빈에게 있어서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완전해도 역시 피조물일 뿐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세상은 세상인 이상,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비견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가리거나 대신할 수는 더더욱 없다. 칼빈의 사상 속에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거리, 질적 차이가 전제되어 있고, 또 항상 강조된다. 스토페르는 말한다. “창조가 아무리 완전하다고 해도, 그러나 그 완전성은 하나님의 완전성에 비교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세계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창조하신 분과는 어떤 방식으로도 같아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sup>93)</sup> 그는 그 같은 점을 잘 보여 주는 설교를 인용했다. “하늘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태양을 창조했을

85. *Institution*, I, 14/20.

86. *Commentaire*, Genèse 2 : 3, 43.

87. *Institution*, I, 14/20.

88. *Commentaire*, Genèse 1 : 31, 40.

89. *Commentaire*, Genèse 1 : 14, 31.

90. *Commentaire*, Genèse, Preface, 19. 여기서 칼빈은 세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의미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다. 토랜스는 칼빈에게 있어서 세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을 거울의 유비를 설명하면서 주장했다. T. F. Torrance, *Calvin's Doctrine of man*(London : Lutterworth Press, 1952), 35-38.

91. *Commentaire*, Genèse, préface, 19.

92. *Le Catechisme de Jean Calvin*(Paris, “Je sers”, 1934), 25.

93.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183.

때, 그분은 또한 별들에게도 얼마간의 빛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신적인 완전함은 없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여전히 그분의 어떤 표시들을 지니고 있지만, 피조물들에게 속한 것들을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하나는 완벽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sup>94)</sup>

### 창조에서의 인간의 지위와 궁극목적론

칼빈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최종점으로서 인간의 창조를 말했다. 즉, 하나님은 옛세에 이르는 동안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칼빈은 인간의 창조를 기독교 강요 1권 15장에서 독립적으로 다루었다. 우리는 이미 인간론 속에서 인간의 창조에 관하여 상세하게 다룬 바 있으므로,<sup>95)</sup>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단지 창조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특히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의 문제만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칼빈에 따르면 인간은 만물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탁월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chef-d'oeuvre)이다. 그래서 인간은 고대인들이 말하던 대로, 정확히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라서 '소우주'(microcosmos)이다. 그 표현은 실은 르네상스 이후 유행하던 것으로서 인문주의 교육을 받았던 칼빈 역시 그 영향으로 차용한 것이다.<sup>96)</sup> 칼빈의 그런 사상은 기독교 강요와 주석, 설교 등 그의 저술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과 다양

성, 완벽한 풍부함으로써 장식하셨고, 그래서 마치 있어야 할 모든 것을 갖춘 거대하고 화려한 궁전같이 꾸미셨던 것이다. 최종적으로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그가 부여한 은혜 때문에 모든 다른 것들보다 더 뛰어난 완전성을 갖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sup>97)</sup>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선의 탁월한 표본이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인간을 정당하게 소우주라고 불렀던 것이다."<sup>98)</sup> "인간은 모든 다른 것들 위에 있는 고귀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 안에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능가하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위를 보나 아래를 보나, 인간과 비슷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가 왜 인간들을 소우주라고 불렀는지를 알게 됩니다."<sup>99)</sup>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최초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이나 땅, 그리고 모든 동물들에게는 조금밖에 주지 않은 것을 그에게는 보란 듯이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의 '소우주'(petit monde)라고 불려집니다. 우리는 거기서 감탄할 만한 것을 많이 보며,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sup>100)</sup>

그런데 칼빈에 따르면, 그렇게 창조된 인간은 모든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주로서, 지배자로서 세워졌다. 물론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로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창세기 1:26~28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른 것이었다. 칼빈은 율기 설교에서 선포했다. "인간은 몸은 작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주(Seigneur)과 통치자(maistre)로 세워졌습니다."<sup>101)</sup>

97. *Institution*, I, 14/20.

98. *Commentaire*, Genèse 1; 26, 35.

99. 6e sermon sur la Genèse, fo. 29.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238.

100. *Opera Calvinii*, XXXIII, 481. 그리고 Congregation sur la divinité de Jésus-Christ, *Opera Calvinii*, XLVII, 480 등.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199, 237.

101. 155e sermon sur Job, *Opera Calvinii*, XXXV, 461. R. Stauffer, 257.

94. 58e sermon sur le livre de Job, *Opera Calvinii*, XXXIII, 726-7.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183-184.

95. 이오갑, "인간론, 칼빈에 따른 창조의 빛에서 본 인간," 한국칼빈학회 편, 「칼빈신학 해설」(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154-189.

96. Cf.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199, 237.

그래서 칼빈은 인간은 모든 짐승들, 가축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그것들은 인간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상의 창조에서, 모든 짐승은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통치자와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sup>102)</sup> “짐승들은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짐승들이 인간에게 예속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창조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인간을 하나님이 세워 주신 바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지배하는 왕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sup>103)</sup>

그러나 그것은 꼭 동물들만은 아니었다. 이 세상의 땅도 인간을 위한 것이었으며, 심지어는 하늘의 태양과 달, 별들마저도 모두 인간을 위한 것, 인간의 쓰임새를 위하여 창조된 것으로서 인간에게 맡겨졌다는 것이 칼빈의 생각이었다. “온 세상은 아담의 발 아래 놓여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하늘이 자신의 유업을 위해서 창조되었으며, 땅이 자신에게 맡겨졌으며, 그리고 모든 것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sup>104)</sup> “태양이 빛날 때,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달과 별들도 역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명령된 것이 아니라 말입니까?”<sup>105)</sup>

이 세상의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칼빈의 생각은 특히 기독교 강요에서 조직적으로 정리되었다. 그것은 특히 하나님의 창조가 엿새 동안에 이루어졌다는 단계적 창조론과 결합된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엿새 동안에 걸쳐 차례로 만드셨는데, 이는 최종적으로

창조될 인간이 모든 것이 잘 갖춰진 세상에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가 이루신 (창조) 순서에 의하여 주님이 친히 보여 주셨다.”<sup>106)</sup> “세상의 창조를 엿새 동안에 나누어 하신 것은 이유 없는 일이 아니었다. 그분은 그 전체를 쉽게 한순간에 완성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금씩 진행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분의 섭리와 그가 우리에게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 관심을 보여 주시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그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태양과 별들의 운행까지 갖춰 놓으실 때까지는, 물들과 하늘을 모든 종류의 생물들로 채우시기까지는, 우리들을 먹이기 위해 모든 종류의 과실들을 만드시기까지는 인간의 창조를 미뤄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가정의 선한 아버지의 사랑을 취하셔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을 보여 주셨다.”<sup>107)</sup> 그 사상은 창세기 주석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인간을 온 세상의 주인으로 세워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동물들을 인간에게 예속시켜 주셨다. 거기로부터 우리는 어떤 목적에서 이 모든 것이 창조되었는지를 알게 된다.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부정적인 배려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분은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그에게 온 세상을 준비해 두셨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부를 풍부하게 넘치도록 갖춰 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부자였다.”<sup>108)</sup>

스토페르는 그 점을 주목하면서 칼빈의 창조론을 ‘궁극목적론’(finalisme)으로서 파악했다.<sup>109)</sup> 칼빈 자신은 그런 철학적인 혹은 기술적인 용어를 쓴 적은 없지만, 그의 사상은 명백히 그 점을 보여 주고 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궁극적으로 한 목적을

102. 152e sermon sur Job, *Opera Calvini*, XXXV, 420. R. Stauffer, 258.

103. 22e sermon sur Job, *Opera Calvini*, XXXIII, 276. R. Stauffer, 258.

104. 6e sermon sur la Genèse, fo 33.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257.

105. 43e sermon sur les Ephésiens, *Opera Calvini*, LI, 790.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257.

106. *Institution*, I, 14/22.

107. *Institution*, I, 14/2.

108. *Commentaire*, Genèse 1 : 26, 37.

109.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213.

가지고 존재하는데, 그것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에 의해 사용되고, 이용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인간들에게 불필요한 것들은 왜 창조되었을까? 궁극목적론이 사실이라면, 인간에게 소용되지 않는 피조물들은 왜 존재한다는 말인가?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칼빈 자신이 알고 있었다. 다행히 그는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줄 수 있었다. 불필요한 것들은 '이 세상의 장식품'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여 주는 일에 소용되며, 또한 인간들이라고 해도 모든 것을 다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인간이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적 용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욕기 설교에서 말한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필요가 없는 그런 짐승들을 보존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동물들을 기르시는 것이 이유가 없는 것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봅시다. 그것들은 그래도 이 세상의 장식품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교육을 위해서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짐승들을 이용할 수 없음으로써, 우리가 우리를 지나치게 격상시키는 과대망상을 가지는 일이 없게 해 줍니다."<sup>110)</sup>

궁극목적론은 극단적인 인간중심주의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자연과 우주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는 매우 위험한 사상으로서, 바로 그것 때문에 자연에 대한 인간의 무차별적인 개발과 남획이 이루어져 왔던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다. 성서, 특히 창세기 1: 26 이하의 말씀들은 그런 궁극목적론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단지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

자연에 대한 지배권과 정복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중심주의적인 사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칼빈의 궁극목적론은 성서의 그 인간중심주의를 받아들였고, 그것을 한층 발전시켜 조직적으로 만든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칼빈의 궁극목적론은, 그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단순히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월주의나 인간중심주의라고 하기 어려운 점들이 발견된다. 특히 그가 궁극목적론을 내세웠던 이유 혹은 목표에서 볼 때 그렇다. 요컨대 칼빈은 궁극목적론을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지배권이나 개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주장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칼빈은 그것을 그와는 다른, 혹은 정 반대의 이유로써 주장했던 것이다. 그것은 두 가지로서, 하나는 신학적인 이유이고, 또 하나는 윤리적인 혹은 실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점을 차례로 살펴보자.

첫째는, 칼빈이 궁극목적론을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만을 더욱 의지하기 위해서라는 점이다. 앞에서 우리는, 칼빈은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부성애로 파악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이 잘 드러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준 하나님을 인간은 그만큼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것들은 인간이 사용하도록 정해졌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더 의무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모든 것을 바치게 하기 위해서였다."<sup>111)</sup> "모세는 인간이 이 땅의 지배자이고 주인이라는 것을 인간이 언제나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가르친다."<sup>112)</sup> "인간의 영원한 유업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

110. 152e sermon sur Job, Opera Calvinii, XXXV, 421.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213.

111. Commentaire, Genèse, préface, 21.

112. Commentaire, Genèse 2 : 16, 54.

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가 현재의 지상생활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묵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sup>113)</sup>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그것을 만드신 분이 영광을 얻는다는 조건으로 우리의 사용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존하는 것은 그분의 선함 때문이고, 우리가 존속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능력 때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거룩하게 합니다.”<sup>114)</sup>

그러나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을 발견하는 것은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풍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만은 아니다. 프랑수아 벤델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칼빈이 인간 중심의 창조, 궁극목적론을 내세웠던 것은, 그렇게 큰 혜택을 입은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그의 죄가 더욱 가중되며, 그만큼 그런 인간을 용서하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선이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래서 벤델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인간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는 말한다. “창조에서 인간의 중심성이 강조되면 될수록, 아담의 죄는 더 중대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되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선함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만일 인간이 창조의 단기적 목표라면, 신적 의지의 전적인 현현으로서 창조의 진정한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최종적 창조라는 단기 목표에 얽혀지는 장기적 목표로서 나타난다. 선하든지 악하든지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광채를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데 협력

해야 한다.”<sup>115)</sup>

결국 이 관점에서 볼 때, 칼빈이 의도한 바에 따르면, 그의 궁극목적론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남획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큰 권리와 은혜를 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인간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즉, 인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더 인간의 지위와 특권, 혜택을 강조했다라는 의미이다.

두 번째로, 칼빈의 궁극목적론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책임이라는 윤리적인, 혹은 실천적인 이유를 갖는다. 그 책임은 자연에 대한 올바른 사용과 보존이라는 책임이다. 칼빈은 인간의 우월성과 특권을 말한 뒤에는 항상 이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인간이 자연에 대한 지배권과 사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자신의 뜻에 따라, 마음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항상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고, 검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 점들은 매우 빈번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언급된다. 우선 그의 얘기들을 들어 보자. “모세는 이제 인간이 땅을 경작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땅이 인간에게 주어졌다고 덧붙인다. 땅이 인간에게 주어졌으며, 그 조건은 그가 땅을 경작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거기로부터 인간들은 게으르고 태만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노동은 매우 기쁘고 즐거운 것이었으며, 지겨움이나 노여움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마시고 먹고 자는 일에 허비하는 것보다 더 자연 질서에 거스르는 것은 없다. 그리고 모세는 아담에게 동산을 지키도록 명령되었다는 점을 덧붙이면서, 우리가 검소하고 간소하게 사용하며 남는 것들은 간직한다는 조건

113. Commentaire, Genèse 2 : 8, 48.

114. Sermon du lundy 4e jour de septembre, 1559, Sermon 1er sur 1 : 1-2, *Supplementa Calviniana*, XI/1, 4.

115. F. Wendel, 126.

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맡기신 것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들 가운데 그런 절약이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즐거움을 누리라고 주신 재화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근면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자는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그에게는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존하기를 원하는 것을 남용으로써 더럽히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sup>116)</sup> “인간은 그 같은 조건으로 창조되었으므로 땅을 자신에게 종속시키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은 주님에 의해서 그에게 주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만 그것을 향유할 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내게 준비된 생물이 여기 있다. 너의 창조 이전부터 이미 정성껏 내게 갖추어 준 나를 너의 아버지로 인정해야 한다. 짐승들을 양육하는 것은 최소한 내게 맡겨졌다. 너는 세상의 아버지로써 세워졌으나 짐승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sup>117)</sup> 칼빈은 크리소스톰이 하나님의 형상을 자연에 대한 지배력이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자연에 대한 지배력은) 하나님의 형상 이라기보다는 인간이 하나님의 부관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18)</sup>

여기서 볼 때, 인간이 지배권과 사용권을 가졌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연을 근면하고 성실하게 잘 ‘보존’하고, ‘양육’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뿐만 아니라 위의 인용문들에서도 이미 언급되긴 했지만, 칼빈은 자연물에 대한 남용을 금지하고 탐욕을 경계하며, 항상 절제와 검소함을 강조했다. 그것은 모두 인간이 자연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

116. Commentaire, Genèse 2 : 15, 53-54.

117. Commentaire, Genèse 1 : 28, 38-39.

118. Commentaire, Genèse 1 : 26, 36.

간을 사랑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그것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모세는 태양과 달이 땅을 비취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필요한 다른 편의들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선을 지극히 높이고 찬양한다. 우리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선을 순수하게 누리면서, 그리고 너무나 많은 종류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그분의 피조물들을 우리의 남용과 사악한 호기심으로써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sup>119)</sup> 칼빈은 또한 하와에게 주어진 가죽옷에 관해 주석하면서, 그것은 “검소하고 비싸지 않은 옷을 입는 일에 습관을 들이도록 하시려는 것”이며, “자나치게 예쁘고 호사스러운 것만 욕망하는 일은 의복이 수치심의 표시이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sup>120)</sup>이라고 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안식일의 폐지에 관해 주석하면서 “영적인 안식은 육신을 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 안에서만 자신의 의지 속으로만 빠져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고, 그러면서 안식일이 단지 휴식의 형태라면 폐지될 수 있으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고 명상하는 ‘영적 안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과 영성, 그런 삶의 형태는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어야 한다.”<sup>121)</sup>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래서 것처럼 “모든 종류의 열매 맺는 나무들로 가득 차고 풍성한 곳”에서 인간이 타락한 것은, 다시 말해서 “그런 풍부한 과일들과 그 온화함과 다양성 속에서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그의 비열한 무절제’이며 ‘너무 비열한 배은망덕’이라고 규탄할 수 있었다.<sup>122)</sup>

119. Commentaire, Genèse 1 : 14, 31.

120. Commentaire, Genèse 3 : 21, 89.

121. Commentaire, Genèse 2 : 3, 44.

122. Commentaire, Genèse 2 : 9, 48.

##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칼빈의 창조론을 마치기 위해서, 그것의 주요한 특징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오늘날의 생태학적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지적해 본다.

첫째, 칼빈은 이 세상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세상은 어떤 신적 기원으로부터 유출된 것도 아니고, 기원적 물질로부터 변형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세상은 창조주와 분명히 구분되는 피조물일 뿐이다. 세계가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답고, 때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피조물이다. 것처럼 그의 창조론은 그 출발부터 하나님과 세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와 거리를 분명히 한다. 그것은 칼빈과 더 나가서 개혁교회의 신학의 근본점이다. 신적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질 뿐 피조된 세계나 세계 내의 어떤 것에 돌려질 수 없다. 바로 여기에 칼빈의 사상과 예배와 경건의 핵심이 담겨 있다.

둘째, 칼빈의 창조론은 근대의 자연과학적 세계관 이전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는 자연과학의 활동과 업적을 중시하고 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으나 동시대에 출현한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적 천체과학을 따르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의 창조론은 근세 이전의 성서적 세계관에 입각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서의 세계관을 문자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다. 그가 '궁창 위의 물'을 부정하고 단지 구름이나 수증기로 설명한 데서 보듯이, 그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따랐다는 점에서 그는 성서의 원시적 세계관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이다. 칼빈의 그런 면모는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좀더 일찍 파급되고 일반화되었다면 그것을 수용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게 해 준다. 그러나 결국 칼빈의 창조론은 기본적으로는 그때까지 교회의 세계관을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칼빈은 창조된 세계를 매우 인간중심적으로 이해했다는 점이다. 그에게서 인간은 창조된 세계의 중심이며 면류관이다. 인간은 타 생물과 자연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며, 심지어는 태양과 달, 별들마저도 인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창조의 인간중심적 이해는 그의 단계적 창조론, 또다른 표현으로서 궁극목적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사실 이 같은 이해는 성서의 창세기 본문들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을 잘못된 방향에서 심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창조를 지나치게 인간중심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인류의 자연파괴와 남획, 수탈을 방조하거나 정당화하는 오류를 범해 왔다는 점에서, 칼빈의 신학 역시 그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칼빈의 인간중심적 창조관은 더 깊이 들어가 볼 때,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월권이나 주권을 강조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즉, 인간이 창조에서 이처럼 특별한 지위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인간을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의도였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현대인들은 무신론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연을 대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자연을 그 하나님과 분리시킨다. 그들은 자연을 신과 분리시키면서 자연을 하나의 물적 대상으로만 여긴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을 마음대로 오염시키고 남획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을 통해서 자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할 때는, 자연과 그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감사한 존재가 된다. 하나님 안에서 자연을 그렇게 인식할 때, 인류는 자연을 진정한 형제애를 가지고 대할 수 있게 된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생태학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칼빈의



창조론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칼빈의 인간중심적 창조관 속에는 인간의 권리나 주권뿐만 아니라, 아니 그보다 더 자연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칼빈은 창조에서의 인간의 존재를 말한 뒤에는 언제나, 어김없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말했다. 인간은 '청지기'로서 자연을 잘 '보존'하고 '양육'해야 한다. 자연물들을 남획해서는 안 되고 항상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 지나친 사치는 자연에 대한 '전쟁'이고 자연을 내신 하나님에 대한 무시하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칼빈이 언제나 강조하고 역설하던 인간의 책임이었다. 그 같은 사상은 오늘날 지나친 풍요를 구가하는 소비사회에 대한 경종이 아닐 수 없다. 자연에 대한 수탈, 환경 파괴는 인간의 소비 욕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재화, 더 많은 생산물이 필요하다. 그것은 곧 자연에 대한 끝없는 개발과 착취로 이어진다. 현재의 생태학적 위기 속에서 인류와 모든 자연 생물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욕망을 다 충족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연은 한정되어 있고, 많은 것들이 고갈되고 멸종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서, 인간의 욕망 자체를 줄여야 한다. 더 절약하고, 더 검소하고, 더 청빈한 삶을 통해서, 인류는 자연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자연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주적 평화, 우주적 구원의 길을 예비해야 할 것이다. 칼빈의 창조론은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